

시청 세미나실을 강원으로

매주 화요일 정오가 되면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은 도심 속의 불교전문 강원이 된다. 벽에 탕화가 걸리고 스님을 중심으로 시청직원들이 마주앉아 경전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강주는 광주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이다. 학인은 광주시청 공무원불자회 회원들과 관심이 있는 직원들이고, 회장이호준 문화정책실장은 입승 역할을 맡는다.

3월 8일 정오에도 세미나실은 부산했다. 강의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총무 이은(보건 위생과)씨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한번도 안 빠졌는데..."라며 억울해 한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상반기 교육과 시의회 개원으로 시청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외부로 출장기가 하기 때문이다. 그냥 가기가 아쉬워 강의실 책상을 정리하고 돌아왔다.

"불교공부를 하고나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불자여서 나도 불자이지 않는데 사실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불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했어요."

강의에 앞서 탕화를 곁들여 자리를 정돈하던 이대성(자치행정국)씨는 "막연히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교리를 배우고 보니 점점 존경심이 우러나온다"며 부처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죠.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니까. 먼저 수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리수리 마하시리 수수리 사바하' 해야 합니다."

이날 강의는 <천수경> 첫째날. 정구업진언을 설명하는 스님 강의에 모두들 웃음을 터트린다. 이처럼 광민 스님의 강의는 쉽고 재미있어 인기가 높다.

광민 스님은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어 공부하는 불자들을 볼 때마다 힘이 솟는다"며 "80%가 거서사로 사무원 이상 근무가 10여 명이 되어서인지 여느 법보보다 청정한"

불교 공부하니 업무가 즐겁네~

광주시청불자회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경전공부 삼매'



광주광역시청 불자회 회원들에게 경전공부는 바쁘고 고된 직장생활을 즐겁게 바꾸어 주는 활력소다. 광주시청 불자회 회원들이 무각사 주지 광민 스님으로부터 <천수경> 강의를 듣고 있다.

자세가 진지해 강의준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했다.

"알아야 불자" 확실한 공감

광주시청 불자회는 3년전 창립했다. 불교세가 열악한 지역이기에 얼마나 모일까 했는데 무려 120여명이 참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간간히 스님들을 초청해 특강으로 법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광민 스님이 교리공부를 제안했다. 무각사에서 진행하던 3개월 과정 교리강좌 프로그램을 옮겨왔다. 교재도 스님이 제작한 것이다. 기초예절은 물론 삼귀의, 예

불문에 이어 <반야심경>까지 마쳤다. 회원들이 기초교리로 무장되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내진집에 경전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교리강좌가 진행되면서 불자로서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시청이라는 특성상 대인업무가 많은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돌출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곤 합니다."

누구보다 경전강의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강의실 '입승'을 자칭한 이호준 회장은 "경전강의를 통해 얻은 지혜를 실천하는 마당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불자회의 잡다한 일을 도맡아하

는 송승중(자치행정과) 간사는 "3개월전 시작한 교리강좌가 인기를 얻으면서 넓은 강의실을 찾아 두 번이나 옮겼다"며 "이번 천수경 강의가 끝나면 감사 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갖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시간을 천금으로 여기는 공직자답게 광주시청 불자회의 경전강의는 낮 12시 정각에 시작해 40분에 끝났다. 강의가 끝나자 곧장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 남은 20분으로 점심공양을 했다. 공양 중에도 강의중 의문나는 것을 스님에게 묻고 답하는 문답 강의가 계속된다. 짧은 역사에도 광주시청 불자회가 일한 신행단체로 자리잡은 비결이 여기에 있다.

글·사진/광주·이준영 기자

청와대불자회장에 김병준 씨...4월6일 취임식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에 김병준(52·사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선출됐다.

청와대불자회는 3월 8일 "청불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김병준 정책실장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취임법회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준 신임회장은 눈에 띄는 신행 활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독실한 불자가정에서 자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

합 집행위원장,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지방자치연구원 이사장, 국민대 교수를 거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참여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해왔다. 박봉영 기자



안양지역 일터불심 '연합'

시청불자회 등 9일 지장선원서 합동법회



안양시청·경찰서·교도소·국토연구원 불자들이 3월 9일 안양 지장선원서에서 첫 연합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지역 직장 신행단체들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와 안양경찰서 불교회, 국토연구원 불자회, 안양교도소 불심회 등 4개 단체는 3월 9일 안양 1동 지장선원서에서 첫 연합법회를 열고 결속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연합법회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동 참여 등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한편 안양지역 불교를 활성화하고 의견을 모았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지역경제과장은 "지역불교 활성화라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안양지역 공무원불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각 단체의 역량을 키우고 불자들은 신심을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 취임법회를 겸해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스님,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 4개 직장 신행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김주현

선재마을의료회 새 회장

첫 여성회장... "찾아가는 봉사 할 터"



의료인불자들의 신행모임인 선재마을의료회의 간판 얼굴이 바뀌었다.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주현(51·사진) 강원대 간호학과 교수가 주인공. 1999년 선재마을의료회가 창립된 이래 여성이 회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아요. 선재마을 의료회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힘을 북돋우는 약사보살이 되겠습니다."

김주현 회장의 포부는 다부지다. "정기적인 의료봉사활동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극빈층, 외국인근로자 등 누구보다 의료혜택이 절실

한 이들을 찾아가는 봉사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이 외에도 김회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봉사 인증단체로 등록해 봉사인력을 확충하는 방안과 해외 의료지원, 종파를 가리지 않는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의료진료를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면사무소 등으로 변경해 놓여온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기대도 크다. 춘천에서 일하면서 도 빠지지 않고 매월 서울역 노숙자 무료진료에 참가해 온 김회장의 열의와 돈독한 신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장은 회장 선출 직후 선재마을의료회에 힘을 불어넣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강훈 내과의(웅인 이강훈내과의원), 이희세 교사(서울대 자문고), 양동선 치과의(국립서울병원 치과과장)를 부회장으로, 감사에 김광수, 손진권 前 회장을, 총무에 여오숙 간호사, 회계에 이선영 간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회장은 서울대 재학시절 의과대 불교학 생회에서 활동한 것이 인연이 돼 선재마을의료회에 가입했다. 한마을선원 부설 한마을과 학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강원지부 부지부장으로 맡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전 공무원불자회 '새출발' 다짐

대전지역 공무원 신행단체들이 새 회장단을 구성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불자회는 3월 3일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이진욱 제3대 회장(55·교통국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전광역시청, 중구·대덕구 등 5개 구청 공무원불자들과 충남도청 공무원불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이진욱 신임 회장은 "대전 지역 공무원불자들의 결속을 다지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신행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도청 불자회도 전 회장의 인사이동으로 권희태 수석부회장(혁신분권담당관)을 새 회장으로 선출, 같은날 취임법회를 열었다. 권희태 회장은 "도청과 산하 시·군청 불자회와의 연계를 통해 회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불자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고요?

차가 궁금하시다고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고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0미터, 길이 1080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머리색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십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성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禪)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